

전남 서부권

“삶의 심표를 찾으러 오세요”

완도군 4월 8~30일 청산도 걷기 축제

“봄이 오면 찾는 그곳, 추억이 있고 자연 경관에 취해 한없이 머물고 싶은 곳 완도 청산도로 오세요!”
‘슬로시티’로 잘 알려진 완도군 청산도 슬로우 걷기축제가 오는 4월 8일부터 23일 간에 걸쳐 봄의 가장 긴 축제로 열릴 예정이다.

가 슬로우 걷기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슬로길 따라 걷는 테마체험여행 다채 = 국제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공식인증 받은 세계 슬로길 1호(11 코스·42.195 km) 걷기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1호 공식인증 선포식과 함께 그야말로 축제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통자원 체험·전시행사 풍부 = 이번 축제에는 청산도 옛날방식 그대로 잘 보존된 전통자원 체험행사도 풍부하다.



로유 걷기축제에는 슬로길을 걷은 여정사가 청산도 고유음식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장터가 운영되며, 예약판매하는 슬로우 도시락, 싱싱하고 맛있는 청정해역 완도

산 특산품과 슬로축제 기념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도 열릴 예정이다.
김중식 완도군수는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에는 다양한 테마 걷기체험과 가족단

위로 즐길 수 있는 많은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며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줄 것”을 기대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명품마을 1호 '관매도'에 매화꽃이 활짝
국립공원 생태관광 본격 시작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국립공원 제1호 '명품마을' 관매도의 상징인 매화 개화시기에 맞춰 관매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공원 생태관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km), 피톤치드길, 습지관찰로 및 해양화 길을 자연환경 안내원의 해설과 더불어 즐길 수 있다. 또 관매마을과 관호마을 주변 2700주의 매화나무가 식재된 매화단지에서 고운 자태를 뽐내는 매화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 평화광장에 해양레저공간 조성

‘춤추는 바다분수’ 등으로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가 ‘해양레저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27일 목포 지방항만청에 따르면 평화광장 앞바다를 요트와 유람선이 왕래하고 해양휴련을 할 수 있는 해양레저공간으로 만들고자 이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바다에 지정됐던 선박 정박지를 갖바위 아래 내항쪽으로 옮겼으며, 실패장이 잠이배 등 소형어선을 남항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목포 항만청 관계자는 “이용 실태를 조사해 목포시와 전남도와 함께 해양레저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교류... 중국어는 필수”

무안교육지원청 초·중 '방과후 학교' 수업 개설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석원)이 한·중 교류에 대비한 중국어 교육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안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육청 대회실에서 교육청 및 목포대 관계자, 관내 초·중학교장 23명, 담당교사 23명, 중국어교육 강사 21명 등 총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했다.

학교에 '방과후 학교' 중국어반을 개설했다. 또 무안 영재교육원에는 중국어 유학반을 개설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무안교육청은 목포대와 교육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중국 정부에서 파견한 목포대 소속 중국어 강사를 지원받기로 하였다. 박석원 교육장은 “앞으로 무안지역 각 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이 활성화되면 체계적인 중국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중국어를 조기 습득해 진학 및 직업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 도서관 '전자책 스마트폰' 서비스

해남 군립도서관이 기존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전자책을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 스마트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도서관 독서 회원에 가입하고 전자책플래이저(lib.haenam.go.kr)에 접속한 후 도서

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자책을 다룬방이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된다. 전자책 스마트 폰 서비스는 무선인터넷(Wi-Fi)과 3G망을 통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과 아이폰으로 가능하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 북

정읍·고창·부안 先교류 後통합?

31일 공무원 인사·관광 협약

전북 서남권에 인접한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광협력 등 손을 맞잡는다. 27일 정읍시와 고창, 부안군에 따르면 3개 지자체는 31일 오후 5시 정읍시청에서 자치단체장과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간 업무 교류 협약식'을 체결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행정구역 통합을 선제적 행보로도 해석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인접한 3개 지역이 발전하려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이후 부단체장과 실무진들이 수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해 협약을 하게 됐다. 협약 실무를 진행한 공무원은 “단체장들이 공동발전을 위해 '현실적이면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인사교류를 되도록 빨리 하자'는 합의를 실천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사 폭과 교류 강도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실무진은 “협약은 수년 내에 실현될 광역 행정구역 개편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새 행정구역도 결국은 '인적교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3개 시·군이 인적교류를 먼저 실천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이 정치·행정권에서 논의되는 광역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 시·군이 자율적 통합을 위해 선제적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홍순선·윤길호기자 parkis@



그린터널'사업 완공후 벚꽃이 만개한 '조경단로(조금도)

“전주는 녹색도시 변신중”

한내로·소리로 등 '그린 터널' 연내 조성 완료

전주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 터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32억원을 들여 푸른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도 3억5000만원을 들여 한내로(전주철교 ~ 만경강 제방길), 소리로, 조경단로, 동물원내 등 4개소(총 연장 7.5km)를 대상으로 기존도로랑

과 연계해 특색있는 수목 식재해 아름다운 도심경관 연출 및 기존 녹지축을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내로는 기존 가로수와 조화를 이루도록 왕벚나무 145그루 벚꽃터널을 조성, 불철 개화시 시민들에게 인기있는 코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리로와 조경단로는 덕진체육공원, 소리문화의 전당, 동물원 등

시설과 인접해 불철 상춘객 및 각종 문화행사 시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주변 도로변 경관향상을 위한 왕벚나무, 광나무 등 5종 4만9144본 가로수·하부관목 식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소규모 생물 서식공간 조성으로 걷고 싶은 보행 환경개선 및 녹음량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황량한 동물원내(6개소) 사육사, 원사주변 등을 느티나무, 왕벚나무, 반송 등 11종 3785그루를 식재하고 건물주변 벽면 인체녹화 등으로 녹음량 확충해 시민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심속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단 신

김제·무주 '민간 육종연구단지' 후보지 신청

전북도는 지난 2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모하고 있는 '민간 육종연구단지' 후보지로 김제시 백산(53ha)과 무주군 안성(48ha)을 신청했다. 민간 육종연구단지는 총사업비 270억원(국비 100%)을 투자해 30~100ha에 20개 종자업체

를 입주시켜 종자생산 및 수출을 선도할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각 시·도로부터 후보지의 공모신청서를 제출받아 내용검토와 현장실시 등을 거쳐 4월 초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한국중축개량협 MOU

정읍시와 한국 중축개량협회(협회장 이재용)는 지난 24일 중축 개량지원에 따른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읍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개량지원 업무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축산업을 발전시킨다

는데 목적이 있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축 개량협회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정읍 축산의 획기적인 혈통관리 보존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is@

31일 원광대서 '2011 그랜드 취업박람회'

'희망 전북 2011 그랜드(GRAND) 취업박람회'가 오는 31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전북도 및 익산권 대표기업 한 마당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총 35개 기업이 오프라인 현장에

참여해 총 497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취업박람회 공식 홈페이지(grand.jobkorea.co.kr)를 통해 오프라인 35개 기업과 온라인 참가기업 160개 총 196개 기업의 채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순창 주민들 '생명산업 연구회' 발족

순창지역 주민들이 군의 경쟁력 있는 핵심자원을 산업화로 이끌고자 스스로 연구모임을 결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순창군과 전북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농식품 마케팅 교육과정과 장류현장형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마친 교육생 200여 명이 지난 24일 '순창

생명산업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김중국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장수농촌마을과 정학수 ▲특용작물과 임금자 ▲장류와 홍공순 ▲일반농산물 식품과 이광희 씨를 분과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귀하신 몸'들의 망중한

세계 휘귀종 흑두루미 4년만에 금강하구 출현

국제적 보호종인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가 지난 2007년 4월에 이어 4년 만에 금강하구둑에 다시 찾아왔다. 27일 군산시 칠서조망대에 따르면 25일 오전 금강조 겨울철새 현황을

조사하던 도중 나뭇잎 금강하구둑 인근 십자들에서 흑두루미 4마리가 한가롭게 먹이를 찾아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했다. 금강하구 지역에서 흑두루미가 관찰된 것은 지난 2007년 4월 2마리가



관찰된 이후 처음이다. 칠서조망대 관계자는 “2007년 나뭇잎 십자들에서 관찰된 이후 4년 만에 금강하구 지역에 흑두루미가 다시 날아들었다”며 “지난 18일경 일본이

즈미 지역에서 흑두루미의 복상이 확인된 데 이어 순천만에서 월동한 개체들도 복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돼 이동중에 잠시 기착한 개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흑두루미는 국제적으로 개체수가 1만여개에 불과할 정도로 국제적인 보호종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nogusu@